

CIS 지역

■ 2005년 러시아 원유수출 감소할 듯

- 2004년 러시아의 원유산업 부문은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했으나, 현지 전문가들은 2005년에도 이와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는 전망하지 않고 있음.
- 2004년 러시아의 원유 채굴량은 460백만톤을 기록해 지난 15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원유 수출은 17%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2000~2004년간 러시아의 원유 채굴량 >

(단위 : 백만톤)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323	348.1	379.6	430	460

(자료원 : 이즈베스찌야 신문 2005. 1. 13일자)

- 주요 원유 업체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수르구트네프찌가즈 (Surgutneftegaz)사가 10.3% 채굴량 증가를 보이며 채굴량 1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로스네프찌(Rosneft)사 10.2%, TNK(Tyumen Oil Company)-BP사 10.1%, 시브네프찌(Sibneft)사 8.2%, 유코스(Yukos)사 6.1%, 루코일(Lukoil)사 3% 순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2004년 러시아의 원유 채굴량은 전년대비 9% 이상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전세계적인 고유가는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2004년 182백만톤 수출을 달성해 17.5%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러시아는 원유, 가스 등 주요 천연자원이 경제의 40~50%를 차지하고 있어 원유 가격에 따라 시나리오를 달리하는 경제운용을 하는 등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러시아 통계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러시아 GDP 성장률은 7.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1월초 6.8%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7.1%로 수정 발표 - 러 연방 경제개발통상부는 지난해 높은 원유가격이 3.6%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발표하였음.
- 러시아의 유력지 이즈베스찌야는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2005년 러시아 원유 산업을 전망했는데, 이에 따르면 2005년 러시아는 전년대비 5~9% 채굴량 감소 및 2.5배의 수출 증가율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가장 주요한 것은 원유 수송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의 주요 원유 수출 루트인 노보라시이스크(러시아, 흑해연안), 프리모르스크(러시아, 발틱해 연안), 벤트스필스(라트비아, 발틱해 연안)의 처리 용량이 이미 한계에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민간은행 1위, 종합순위 5위인 알파뱅크의 전문가들은 2004년 12월부터 원유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해 2005년 1분기에는 2%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음. 결국 대부분의 현지 전문가들은 2005년 전년도 9%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던 채굴량은 5% 증가, 17.1%를 기록했던 원유 수출 증가율은 6.6%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 세계 원유 시장 가격 동향은 러시아 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로 현지 경제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올해 원유 시장가격이 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11~12월간 기 관측된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유산업 의존도가 심한 러시아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 하나의 문제는 국내 원유가격과 수출가격과의 불균형임. 러시아는 수출가격보다 국내 에너지 가격이 저렴하여 이를 경제성장 발판으로 삼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러 정부는 원유회사들이 지불하는 원유 수출세를 통해 국내외 원유 수급량 조절 및 국내 원유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데, 약 2-3개월 마다 원유 수출세를 조정함.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 1일부로 톤당 87.9불을 부과하였고, 12월 1일부터는 톤당 101불, 올해 2월 1일부터는 톤당 83불의 수출세를 부과하였음.
- 이러한 잦은 세금 변동은 러시아 경제가 원유 등 천연자원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쿠드린 러 재무장관이 중소기업의 발전이 러시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문의처 : 모스크바무역관 이금하 kumhalee@kotra.or.kr)